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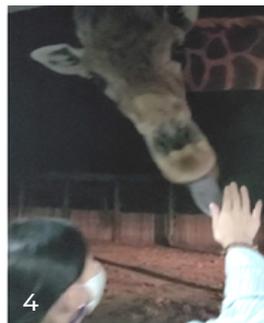


김 선교사는 지난 기초수업에 이어서 이번에 첫 학기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신택스와 포놀로지 수업에서는 실제 연구되고 있는 소수부족 언어들을 분석해 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복잡한 언어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회언어학을 통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소수 언어들의 환경에 대해 고민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언어들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미얀마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로부터 다양한 부족의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앞으로 일하게 될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영어권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 학기동안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와 같은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뉴질랜드 역량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꽤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면, 파압대학이 현장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 실제 필드에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수업과 과제로 인해 주말마다 야외활동을 하기로 한 계획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기회가 되는대로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에버랜드에 가보지 못했었는데, 훨씬 저렴한 입장료로 나이트 사파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트램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여러 동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 밤이라 대부분 쉬고 있었지만, 운이 좋게 기린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지유가 용기있게 손을 내밀고 기린이 지유 손을 핥았습니다. 기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1월엔 태국의 레이끄라통이라는 등불 축제가 있었는데요. 여행객들이 일부러 이 기간에 맞춰서 올 정도로 장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입장료가 너무 비싸 포기하려고 했는데, 메인 행사장이 아닌 입장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아이들과 다녀 왔습니다.



1. 따뜻한 12월이 아직은 어색한 가족
2. 나이트 사파리
3. 풍등이 수놓은 밤 하늘
4. 지유와 기린의 교감
5. GBT 선생님들과의 만남
6. 지아의 성탄축하 워십공연
7. 지유의 성탄축하 컵타공연
8. 풍등을 날리는 지유, 지아
9. 본부와 사역지 협의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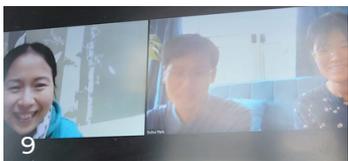
Pray for us

1.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도 주님께서 가족 모두에게 새소망을 부어주시도록
2. 저희 가정이 준비하는 사역과 현지 상황의 필요가 잘 맞는 곳으로 사역지를 잘 결정하고, 사역지로 이동하는 적절한 시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정할 수 있도록.
3. 김 선교사가 한 학기동안 수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학의 시간동안 재충전하여 다음 학기 수업도 잘 감당하도록
4.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동기부여가 잘 되고 배움에 즐거움이 있도록
5.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분들의 삶과 교회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하도록
6.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가 가족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TALK 김남산 godovam 박수희 lordinsh

✉ namsan_kim@gbt.or.kr su-hui_park@gbt.or.kr

Past Event Photos



축제 기간 내내 낮부터 밤까지 들리는 폭죽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밤 하늘을 수놓은 풍등과 불꽃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석하고 있는 선교교회에서는 성탄축하 행사를 12월 4일에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지유, 지아가 아직 친구들과 서먹해 했는데, 매주 연습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거리를 좁힌 거 같아 감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두들 기쁘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기 중간에 교수님들의 초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각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듣고,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제법 익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열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두 앓을만한 공간이 되지 않아 접었었는데 이번엔 기말을 앞두고 쿠키와 브라우니를 구워 메시지와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학기가 모두 끝나고 그동안 태국에서 저희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임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오랜만에 다같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역지 협의. 12월 14일에는 본부와 사역지 조율을 위한 줌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파푸아뉴기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지 사역자분과 메일로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실제 그곳의 필요와 저희 가정의 역할이 맞는지 앞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역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만나게 될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얻게 될 많은 정보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이끌어가실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쉽고 회복 저희는 12일부터 4주 동안 김 선교사의 학교 방학으로 인해 홈스쿨도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가족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20일~23일에는 슬리핑기차를 타고 방콕에 갔다가 차로 파타야로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성탄 보내시고, 새해에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